

氣血과 血氣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이용태* · 조장수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동의대학교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양재아카데미한의원

Study about Ki-blood and Blood-Ki in Hyungsang Medicine

Yong Tae Lee*, Jang Soo Cho¹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Yangjae Academy Oriental Clinic

Seeing through the reference of literatures 《Internal Classic》, 《Donguibogam》 and Master Jisan's theory about Ki-Hyul and Hyul-Ki, the writer came to conclusions as follows. In 《Internal Classic》 Ki-Hyul is expressed into being orderly and ordinate, but Hyul-Ki is described differently into making Hyul-Ki or operating Hyul-Ki. In 《Donguibogam》 Ki-Hyul and Hyul-Ki are not distinguished between two things, but Ki-Hyul is mentioned as harmony of Ki-Hyul and Hyul-Ki, and Hyul-Ki as ascending and descending or as deficiency and excess. In Hyungsang medicine the special characters of Ki-Hyul is seized the essence of the meanings from the deflection between left and right, changes of skin, flesh, meridian, muscle and bones. And the distinctive marks of Hyul-Ki is got hold from changes of complexion, many or few hairs, ascending or descending spirits of ears, eyes, mouth and nose. Also Ki-Hyul is recognized by laying stress on rise and fall, after birth, breast, upper limbs, eight extra meridians. And Hyul-Ki is recognized by laying stress on going up and down, the inborn constitution, abdomen, lower limbs, and twelve meridians. Jisan distinguished Ki-Hyul from Hyul-Ki theoretically and he applied the theory to clinical examination proved the facts that the theory and the examination are in accord with each other. This attempts was for the first time in Oriental medicine history and the theory was set up. It is thought that the defects of the theory about Ki-Hyul and Hyul-Ki which Jisan insisted on need much more study from now on.

Key words : Ki-Hyul(氣血), Hyul-Ki(血氣), Hyungsang medicine, Donguibogam, ulInternal Classic(內經)

서론

氣血과 血氣에 대하여 《內經·素問》의 <脈要精微論>, <至眞要大論>¹⁾, <陰陽應象大論>, <六節藏象論>, <血氣形志>, <八正神明論>, <調經論>, <五常政大論>과 《內經·靈樞》의 <衛氣失常>, <玉板>, <經脈>²⁾ 및 <本臟>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氣血은 正平으로 특징지어지고, 血氣는 生血氣 및 行血氣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한편, 《東醫寶鑑》에서는 內景篇의 <人氣盛衰>, <養性禁忌>, <魂魄爲夢>, <胃爲水穀之海>, <血崩血漏>, <小便門의 難治不治證>, 外形篇의 <人面耐寒>, <耳目受陽氣以聰明>, <肉主肥瘦>, <肩臂病因>, <脚氣治法>, <十二經毛髮多少>, 雜病篇의 <察病玄機>, <肥瘦辨病候>, <升降失常爲病>, <手足癱瘓>, <心虛

藥>, <惡阻>, <婦人雜病>, <小兒乳哺法> 등에서 나타나는데, 氣血은 氣血의 調和, 血氣는 昇降과 虛盛으로 구별되고 있다.

氣血에 대한 定義가 문헌에서는 분명하지 못하나 朴³⁾은 左右의 均衡을 잡아주는 것⁴⁾, 皮肉脈筋骨을 총칭하는 것⁵⁾, 剛柔와 動靜의 形평을 잡아주는 것⁶⁾, 음양변화의 基準과 順次와 그리고 權衡을 갖도록 하는 것⁷⁾이라 하였다. 血氣에 대해서는 《內經·素問》과 《東醫寶鑑》에서는 '血氣者 人之神'⁸⁾이라 하였고, 朴은 人體의 근본인 精氣神血 즉 形을 뜻하는 것⁹⁾, 올라갈 줄만

1) 精校黃帝內經 p. 189 '謹道如法, 萬學萬全, 氣血正平, 長有天命'
2) 精校黃帝內經 p. 229 '脈道以通, 血氣乃行'
3) 박인규·형상의학을 주창함.
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99
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4권 p. 160
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99
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7권 p. 229
8) 精校黃帝內經 p. 55
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3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l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5/05/24 · 수정 : 2005/06/23 · 채택 : 2005/07/21

알고 내려갈 줄을 모르는 것¹⁰⁾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여 임상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芝山은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여 인체 생리 및 병리를 설명하고 이를 임상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에 저자는 《內經》과 《東醫寶鑑》에서 언급된 氣血과 血氣의 쓰임을 살펴본 후, 차이 주장한 氣血과 血氣에 대한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임상례를 고찰한 결과 그 활용성이 매우 유효함을 알 수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氣血과 血氣는 여러 의서에 많이 혼용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이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서술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氣血은 氣와 血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人體를 構成하는 物質의 基礎와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基本要素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편 氣와 血은 相互 互根關係에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血爲氣配¹¹⁾라 하였고, 金¹²⁾은 “氣는 血의 師라 하였으며, 血은 氣의 母”라 하였고, 배¹³⁾는 “氣는 血을 溫煦·推動·化生·統攝하는 작용이 있고, 血은 氣를 濡養하는 등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여 기와 혈은 상호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氣血은 상호 의존성이 있는 관계로 각각 氣와 血로 나누어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론 上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血氣는 《內經·素問》의 <八正神明論>¹⁴⁾과 《東醫寶鑑》의 <神爲一身之主>¹⁵⁾와 <痰病有似邪祟>¹⁶⁾에서 人之神이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氣血과의 뚜렷한 구별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에서 氣와 血은 모든 자연현상과 인체의 생리적 및 병리적 개념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잣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氣가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血이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形象醫學에서는 前者의 경우를 氣血이라 칭하고, 後者의 경우를 血氣라고 칭하는데 氣血은 즉 氣先血後¹⁷⁾, 血氣는 血先氣後¹⁸⁾를 뜻하고 있다. 또한 氣血은 流動의이긴 하지만 形의 균형과 조화를 위주로 하고 있고, 血氣는 그 氣勢와 性情이 유동적이면서도 上昇勢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氣血과 血氣라는 것이 후대가들에게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형상의학에서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된다.

1. 《內經》에서 쓰인 氣血과 血氣

1) 《內經》에서 쓰인 氣血

<脈要精微論>¹⁹⁾의 ‘絡脈調勻, 氣血未亂’과 <至眞要大論>²⁰⁾의 ‘謹道如法, 萬舉萬全, 氣血正平, 長有天命’이라 함은 氣血의 安定을 뜻하고 있으며, <四時刺逆從論>²¹⁾의 ‘是故邪氣者, 常隨四時之氣血而入客也’와 <通天>²²⁾의 ‘少師曰 蓋有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은 계절과 사람에 따라 氣血의 편차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玉版>²³⁾의 ‘岐伯曰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海之所行雲氣者, 天下也.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라 하여 氣血은 후천의 水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內經》에서 쓰인 血氣

<調經論>²⁴⁾의 ‘五藏之道, 皆出於經隧, 以行血氣’ 및 <五常政大論>²⁵⁾의 ‘夫經絡以通, 血氣以從, 復其不足, 與衆齊同, 養之和之’와 <邪氣臟腑病形>²⁶⁾의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및 <終始>²⁷⁾의 ‘凡刺之道, 氣調而止, 補陰瀉陽, 音氣益彰, 耳目聰明, 反此者, 血氣不行’과 <經脈>²⁸⁾의 ‘脈道以通, 血氣乃行’ 및 <本臟>²⁹⁾의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이라 함은 血氣의 運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陰陽應象大論>³⁰⁾에서는 ‘陰陽者, 血氣之男女也’라 하여 血氣로서 男女를 분류하였고, <六節藏象論>³¹⁾의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라 하여 肝이 血氣를 生한다고 하였다. 나이에 따른 血氣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天年>³²⁾을 보면 30歲까지는 氣血보다는 血氣가 위주가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心氣가 血氣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陰陽二十五人>³³⁾에서 몇 구절의 氣血이 나오긴 하지만 手足三陽經의 上下에 따른 血氣의 盛少가 毛髮의 多少와 美惡을 결정하는 主要素가 됨을 알 수 있다.

3)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바 《內經》에서 사용한 기혈과 혈기의 문장을 대비해 본다면 氣血은 주로 後天에서 얻어지고³⁴⁾, 衡平을

1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188
11) 東醫寶鑑 p. 106
12) 한의학원론 p. 127
13) 기초한의학 p. 531
14) 精校黃帝內經 p. 55
15) 東醫寶鑑 p. 94
16) 東醫寶鑑 p. 132
1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4
1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4

19) 精校黃帝內經 p. 37
20) 精校黃帝內經 p. 189
21) 精校黃帝內經 p. 124
22) 精校黃帝內經 p. 327
23) 精校黃帝內經 p. 309
24) 精校黃帝內經 p. 117
25) 精校黃帝內經 p. 148
26) 精校黃帝內經 p. 214
27) 精校黃帝內經 p. 226
28) 精校黃帝內經 p. 229
29) 精校黃帝內經 p. 288
30) 精校黃帝內經 p. 19
31) 精校黃帝內經 p. 26
32) 精校黃帝內經 p. 301

血氣已和, 營衛已通, 人生十歲, 五臟始定, 血氣已通, 其氣在下, 故好走. 二十歲, 血氣始盛, 肌肉方長, 故好趨. 三十歲, 五臟大定, 肌肉堅固, 血氣盛滿, 故好步. 四十歲, 五臟六腑十二經脈, 皆大盛以平定, 腠理始疏, 榮華頹落, 髮頭斑白, 平盛不搖, 故好坐. 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汁始減, 目始不明. 六十歲, 心氣始衰, 故憂悲, 血氣懈惰, 故好臥. 七十歲, 脾氣虛, 皮膚枯. 八十歲, 肺氣衰, 魄離, 故言善誤. 九十歲, 腎氣焦, 四臟經脈空虛. 百歲, 五臟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 血氣虛, 脈不通

33) 精校黃帝內經 pp. 313-315

34) <通天>에 나오는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이란 문장에는 선천적인

잡으며, 형태적인 것으로, 血氣는 先天에서 생겨나고, 流動의이
며³⁵⁾, 기능적인 것으로 추론 된다.

2. <東醫寶鑑>에서 쓰인 氣血과 血氣

氣血과 血氣에 대한 <東醫寶鑑>에서의 비교 및 분석은 많
은 의서가 집대성된 관계로 그 일관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 본
항목에서는 논문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
로 한다.

1) <東醫寶鑑>에서 쓰인 氣血

<人氣盛衰>³⁶⁾에서는 ‘四十歲 五藏六府 十二經脉 皆太盛以
平定 腠理始疎 榮華頽落 髮鬢斑白 氣血平盛 而不搖 故好坐’라 하
여 <靈樞·天年>을 인용하고 있는데 <天年>의 원문엔 氣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의 취지를
살려 해석한다면 40세에 氣血이 平定되고 旺盛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老少之睡不同>³⁷⁾에서는 ‘老人之不夜眠 少壯之不晝
眠者 何氣使然 岐伯答曰 壯者之氣血盛, ……’, 故晝精而夜眠 老者
之氣血衰 ……’, 故晝不精而夜不眠’라 하여 老壯인에 따른 氣血의
盛衰가晝夜의 睡眠狀態를 조절하는 기틀이 됨을 밝히고 있다.

<夢疇屬心>³⁸⁾의 ‘若內傷氣血不能固守 而夢遺者 當補以八物
湯加減’이라 함은 氣血의 손상이 泄精의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虛勞證>³⁹⁾의 ‘虛者 皮毛肌肉筋脉骨髓氣血津液不足是也’라
함은 氣血의 不足이 虛者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肩臂病因>⁴⁰⁾에서는 ‘氣血凝滯臂痛 宜薑黃散 舒經湯’이라
하여 氣血의 凝滯가 肩臂痛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養正積自除>⁴¹⁾에서는 ‘壯人無積 虛人則有之 皆由脾胃怯弱
氣血兩衰 ……’, 治法當先補虛 使氣血壯則積自消’이라 하여 氣血
을 壯하게 하면 積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婦人雜病>⁴²⁾에서는 ‘婦人者 衆陰之所集 常與濕居 ……’,
所以婦人別立方者 以其氣血不調 胎妊產生 崩傷之異故也’라 하여
氣血의 不調가 婦人病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胃爲水穀之海>⁴³⁾에서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
也 胃者水穀氣血之海也 海之所行雲氣者 天下也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 經隧者 五藏六府之大絡也’와 <奇經八脉>⁴⁴⁾에서 ‘總領諸
經氣血 三脉皆起於氣衝 氣衝又起於胃脉 其源如此 則知胃氣爲本
矣’라 하여 氣血은 후천적으로 곡식으로부터 얻어지고 이에 따라
胃가 氣血의 바다가 됨을 말하고 있다.

<四時鍼法>⁴⁵⁾의 ‘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
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是故邪氣者 常隨四時之氣血而入客也’이

개념이 들어있기도 하다.

35) <生氣通天論>에서 “氣血以流”라고 하여 운행적인 면이 보이긴 하였으
나 이 문장을 제외하면 血氣만 흐르는 개념으로 나온다.
36) 東醫寶鑑 p. 73
37) 東醫寶鑑 p. 117
38) 東醫寶鑑 p. 83
39) 東醫寶鑑 p. 443
40) 東醫寶鑑 p. 298
41) 東醫寶鑑 p. 491
42) 東醫寶鑑 p. 625
43) 東醫寶鑑 p. 149
44) 東醫寶鑑 p. 777
45) 東醫寶鑑 p. 754

라 함은 四時의 氣運에 따라 氣血이居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東醫寶鑑>에서 쓰인 血氣

<人氣盛衰>⁴⁶⁾에서 ‘靈樞經曰 黃帝問氣之盛衰 岐伯對曰 人生
十歲 五藏始定 血氣始通 眞氣在下 故好走. 二十歲 血氣始盛 肌肉
方長 故好趨. 三十歲 五藏大定 肌肉堅固 血脉盛滿 故好步.’라 하여
30세까지는 즉 인생의 전반부에는 血氣가 위주가 된다고 밝혔다.

<小兒乳哺法>⁴⁷⁾의 ‘人生十六歲以前 血氣俱盛 如日方升 如
月方圓’의 ‘小兒血氣俱盛 食物易消 故食無時’, <先賢格言>⁴⁸⁾의
‘丹溪色慾箴曰 惟人之生 與天地參 坤道成女 乾道成男 配爲夫婦
生育寄 血氣方剛, ……’, 陰平陽秘 我體長春 血氣幾何 而不自惜’
라 함은 인체의 성숙이 血氣의 方剛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五臟과 관련하여서는 <人氣盛衰>⁴⁹⁾의 ‘六十歲 心氣始衰 喜
憂悲 血氣解墮 故好臥’ 및 <魂魄爲夢>⁵⁰⁾과 <心傷證>⁵¹⁾의 ‘邪客使
魂魄不安者 血氣少也 血氣少者屬於心’, 그리고 <心虛藥>⁵²⁾의 ‘心
虛血氣不足以成虛勞’이라 하여 血氣가 心臟에 속한다고 하였다.
<老人眼昏>⁵³⁾의 ‘人年老而目昏者 血氣衰 而肝葉薄 膽汁減 而目
乃昏矣’와 <惡阻>⁵⁴⁾의 ‘懷孕 愛喫一物 乃一藏之虛 如血氣弱 不能
榮肝 肝虛故愛喫酸物’이라 하여 血氣가 肝을 滋養한다고 하였다.
한편, <臟腑異用>⁵⁵⁾에서 ‘靈樞曰 五藏者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라 하여 血氣가 五臟에 저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五臟의 發
顯은 面色과 耳目口鼻의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⁵⁶⁾ 나타나므로 血
氣 또한 이곳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胞部
位>⁵⁷⁾에서는 ‘兩腎間名大海 而貯其血氣 亦名大中極 言取人身之上
下 四向最爲中也’라 하여 胞가 血氣의 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難治不治證>⁵⁸⁾의 ‘老人氣虛 小便不通 爲下焦血氣乾者死’
라고 한 것 역시 血氣가 下焦에居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

血氣의 運行에 대해서는 <養生禁忌>⁵⁹⁾의 ‘血氣妄行 喪生之
本也’ 및 <脚氣禁忌法>⁶⁰⁾의 ‘血氣壅滯 而愈增腫痛矣’와 <偏枯>⁶¹⁾
의 ‘血氣偏虛 半身不遂 肌肉枯瘦 骨間疼痛 謂之偏枯’ 및 <肉主肥
瘦>⁶²⁾와 <肥瘦辨病候>⁶³⁾의 ‘肥而澤者 血氣有餘 肥而不澤者 氣
有餘血不足 瘦而無澤者 血氣俱不足’과 <十二經毛髮多少>⁶⁴⁾에

46) 東醫寶鑑 p. 72
47) 東醫寶鑑 p. 632
48) 東醫寶鑑 p. 77
49) 東醫寶鑑 p. 73
50) 東醫寶鑑 p. 115
51) 東醫寶鑑 p. 141
52) 東醫寶鑑 p. 448
53) 東醫寶鑑 p. 226
54) 東醫寶鑑 p. 607
55) 東醫寶鑑 p. 137
56) 形象鍼法 研究 pp. 102-109
57) 東醫寶鑑 p. 155
58) 東醫寶鑑 p. 173
59) 東醫寶鑑 p. 77
60) 東醫寶鑑 p. 304
61) 東醫寶鑑 p. 360
62) 東醫寶鑑 p. 289
63) 東醫寶鑑 p. 341
64) 東醫寶鑑 p. 307
靈樞曰美眉者太陽多血通髻極頻者少陽多血美鬚者陽明多血 ○足陽明之
上血氣盛則鬚美長血氣少則無髻兩物多也 ○足陽明之下血氣盛則下毛美
長至胸血氣皆少則無毛雖有則稀枯瘁 ○足少陽之上血氣盛則通髻美長血

서 밝히고 있다. 血氣의 운행 중에서도 특히 昇降에 대해서는 <血崩血漏>⁶⁵⁾의 ‘宜大補脾胃 而升舉血氣’ 및 <人面耐寒>⁶⁶⁾의 ‘人之十二經脉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 而走空竅’와 <耳目受陽氣以聰明>⁶⁷⁾의 ‘耳目之聰明 必須血氣相須始能視聽也’ 그리고 <升降失常爲病>⁶⁸⁾의 ‘凡頭面上病 皆百邪上攻 胸膈間病 皆百邪上衝 腸胃間病 皆百邪下流而傳入 不然 則血氣失升降之常 陽當升而不升 陰當降而不降 識病機括 盡於此矣’에서 주로 血氣의 升降 작용을 말하고 있다. 특히 <語遲行遲>⁶⁹⁾의 ‘小兒鶴膝者 由稟受不足 血氣不充’과 <髮不生齒不生>⁷⁰⁾의 ‘髮不生者 因稟受血氣不足 不能榮於髮’에서는 氣血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에 반해 血氣는 선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小結

《東醫寶鑑》에서의 氣血은 혹 운행적인 면이 보이긴 하였으나 平定과 調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생성은 후천적으로 胃로부터 얻어진다. 그에 반해 血氣는 先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고, 인생을 전후반부로 쪼갠다면 血氣는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臟腑에서는 肝臟 및 心臟, 胞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로 運行 특히 昇降機能에 의해 인체의 생리적 현상들을 주관한다. 《東醫寶鑑》에서 사용한 氣血과 血氣의 개념은 胞를 제외하고는 《內經》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3. 形象醫學에서 쓰인 氣血과 血氣

지산선생은 氣血과 血氣란 용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고 한의학에 입각하여 그 개념과 임상활용을 달리하였다. 여기서는 지산선생이 주장한 氣血과 血氣에 대해서 편의상 氣血의 개념, 血氣의 개념, 氣血과 血氣의 상관관계로 구분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1) 氣血의 개념

지산선생의 어록과 저서에 나와 있는 氣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男子는 形이 爲主로 되어 있으니 肉體 卽 氣血이 旺盛하고 머리는 鈍하다.⁷¹⁾

○ 氣血은 兩虛하다는 말을 써놨어. 八物湯은 虛勞門에 보면 氣와 血이 두 가지 다 虛해서 陰陽을 調和시키지 못할 때 쓴다고 해놨어.⁷²⁾

○ 例題로 어떤 사람이 뼈는 작는데 살이 쪼어. 이것은 氣血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皮·肉·筋·骨·脈이 서로 相接한 곳이 衡平을 잡아줘야 하는데 肉은 많고 骨은 弱하면 氣血病이지. 또 뼈는 굵는데 살이 없어. 이것도 氣血病이다. 어떤 女子가 왔는데 손

에 핏줄이 시퍼렇게 튀어나왔다. 이것은 氣血病이야. 手足自體가 氣血病이야. 氣血이 나빠서 脈이 그런 것이다. 또 女子가 다리에 핏줄이 시퍼렇게 나왔다. 이것은 氣血이 나쁜 것이다. 피를 뽑고 八物湯을 주면된다. 靜脈瘤라는건 氣血이 脈을 못 싸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때 血管의 支流 말고 本流를 瀉血시키면 시커먼 피가 나오게 된다.⁷³⁾

○ 半身不遂라는 것은 딱 반쪽으로 氣血이 나빠서 오는 것이다. 幾何學에서 쓰는 道具인 콤파스는 양쪽을 다 쓰는데 한 쪽이 軸이 될 때가 있고 반대쪽이 軸이 될 때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化顯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血氣가 氣血로 바뀌는 곳이 頭이며 男子는 피가 精液으로 바뀌어 지는 곳이 陰頭이다. 똑같은 머리도 용도가 달라지는 法이다.⁷⁴⁾

○ 八物湯의 概念은 氣血藥으로 左右의 衡平을 잡아주는 代表的인 藥이야. 여기서 氣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 天에 있어서는 氣가 動함으로써 血이 따라 움직이고, 地에 있어서는 血이 動함으로써 氣가 따라 움직인다는 바로 이 事實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兩分하면 오른쪽은 氣가 되고 왼쪽은 血이 돼. 그래서 왼쪽이 나빠서 왔으면 四物湯 加 竹瀝·薑汁을 쓰고, 오른쪽이 나빠서 왔으면 四君子湯 加 竹瀝·薑汁을 쓰면 되는 거야. 또 이 氣血이라는 것은 손발을 가지고 卽 뿌리와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뿌리와 가지가 잘 자라야 本體가 衡平을 잡아주게 되어 있어. 八物湯은 實際로 男子藥이야.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있어.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理由가 있는 거야. 病이 앞으로 들어왔느냐 혹은 뒤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藥을 쓰는 方式이 달라지는 거야. 또 病이 위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밑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 요컨대 앞이 나쁘냐, 뒤가 나쁘냐, 상이 나쁘냐,下が 나쁘냐, 天地가 나쁘냐, 地天이 나쁘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⁷⁵⁾

○ 氣血이란 皮肉脈筋骨을 총칭해서 말한다.⁷⁶⁾

○ 氣血이란 腠理를 통하여 일어나는 水火의 昇降運動을 말하는 것이다. 통로가 막힌 것을 풀어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積聚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면 平胃散을 쓰는 경우가 많으나 눈이 함몰되어 있으므로 脾胃의 運行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消積元元散을 쓴 것이다.⁷⁷⁾

○ 氣血의 定義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陰陽變化에 基準과 順次와 그리고 權衡을 갖도록 하는 것이 氣血이다.⁷⁸⁾

○ 左右의 어개는 氣血로 人體의 衡平을 잡아주는 役割을 해.⁷⁹⁾

○ 가슴은 剛柔로 되어 있는데 剛柔란 氣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剛柔는 氣血의 多少로 봐라 그 말이야. 그리고 女子가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氣가 實한 걸로 봐줘.⁸⁰⁾

○ 氣血운동은 쭉그러드는 것이다.⁸¹⁾

이를 종합하면 形象醫學에서 보는 氣血의 개념을 다음과 같

氣皆少則無髻 ○足少陽之下血氣盛則脛毛美長血氣皆少則脛無毛 ○足太陽之上血氣盛則美眉眉有毫毛(毛之長者曰毫)血多氣少則惡眉 ○手陽明之上血氣盛則美血氣皆少則無髻 ○手陽明之下血氣盛則腋下毛美 ○手少陽之上血氣盛則眉美以長 ○手太陽之上血氣盛則額多鬚

65) 東醫寶鑑 p. 159
66) 東醫寶鑑 p. 209
67) 東醫寶鑑 p. 233
68) 東醫寶鑑 p. 343
69) 東醫寶鑑 p. 652
70) 東醫寶鑑 p. 652
7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25
7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84

7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203
7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365
7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385
7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4권 p. 160
7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5권 p. 221
7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7권 p. 229
7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36
8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16
8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257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左右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둘째, 皮肉筋骨을 총칭하는 것이다. 셋째, 剛柔와 動靜의 형평을 잡아주는 것이다. 넷째, 陰陽變化의 基準과 順次와 그리고 權衡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血氣의 개념

지산선생의 어록과 저서에 나와 있는 血氣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털이 나는 것은 물이 모이기 가능한 것이다. 女子는 血氣를 爲主로 했으므로 눈썹과 머리가 아름답다.⁸²⁾

○ 血氣는 外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呼吸과 四肢의 運動은 次序가 있다. 卽,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올리고(손이 몸에서 멀어지고) 숨을 들이쉴 때는 팔을 내린다.(손이 몸으로 가까워진다.) 만일 숨을 들이쉬면서 팔을 올리면 팔이 빠지게 되어 있다.⁸³⁾

○ 입은 바닥이야. 밑에가 動하기 때문에 逆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醫書에 厥陰은 逆한다고 써있어. 肝이란 말에도 逆한다는 뜻이 있어. 肝火가 動한다는 말은 逆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야. 입이 發達된 女子는 逆해서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七情에 갖다가 붙이면 입이 발달된 女子는 血氣가 盛하고 怒火가 많고, 火가 잘 動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血氣가 盛하다는 것은 '精神力이 強하다.' 내지는 '魂魄이 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⁸⁴⁾

○ 皮膚呼吸은 大便이 나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땀으로써 血氣가 造成이 되는 것이다.⁸⁵⁾

○ 血氣가 나빠지는 것은 皮膚呼吸이 안되기 때문이야.⁸⁶⁾

○ 예를 들어 內痔疾이 있어서 코끝이 붉어졌다고 하면 코끝을 大腸으로 봐서 皮膚呼吸을 시켜주는 藥을 줘. 왜냐하면 肛門은 筋脈으로 되어 있고 痔疾이란 皮膚呼吸이 안되어 오는 病이니까 그런 거야. 筋脈이 나쁘면 肛門이 나빠지게 되어 있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방귀가 나오는데 이것은 皮膚呼吸이 안 되어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한테 黃芪+補湯을 써주면 방귀가 줄줄 나오다 皮膚呼吸이 잘 되면서 좋아져. 또 이 藥을 먹으면 눈하고 귀가 다 좋아져. 왜냐하면 눈하고 귀는 血氣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痔疾 手術을 했어도 이 藥을 服用해야 돼. 痔患者가 코끝이 붉다면 內痔疾과 聯關을 시키는 거야. 코라는 것은 24節侯를 象徵하는데 코끝이 붉다는 것은 風寒濕病을 意味해. 그러니까 血氣를 돌구어서 皮膚呼吸을 시켜주는 藥을 써 주는 거야. 이제는 痔疾의 概念을 좀 달리 해야 되겠지? 皮膚呼吸은 皮肉筋骨脈을 滋養해 주는 거야. 또 머리가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12經脈이 나쁘고 血氣가 不足되어 머리가 벗겨지는 거야. 따라서 대머리인 사람한테는 血氣를 돌구어주는 藥을 쓰는 거야.⁸⁷⁾

○ 눈은 血이고 귀는 氣야. 이 患者는 눈에 問題가 있으니까 血氣가 나빠서 온 病인데 血氣가 나쁘다는 것은 12經脈이 나빠서 皮膚呼吸이 안된다는 뜻이야. 皮膚呼吸은 皮肉筋骨脈을 滋養하고 風寒濕燥火를 排除하는 役割을 하는데 人體를 보면 內가

외로 卽 배의 律動作用이 얼굴로 發顯되게 되어 있어. 배는 變化의 軸이니까! 그래서 胞를 十二經脈의 바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女子가 입이 發達되어 있다고 할 때 잘 모르겠으면 皮膚呼吸을 시켜줘. 香蘇散은 입이 發達된 女子에게 쓰는 藥이야. 女子가 오면 無條件 香蘇散 合 四物湯을 써줘도 무방해. 그런데 銘心해야 할 點은 香蘇散을 쓸 때는 반드시 감기몸살 비슷하게 몸이 아프지 않느냐고 꼭 물어 봐야 해.⁸⁸⁾

○ 形氣가 무너지면 죽게 되어 있어. 血氣가 없어지면 죽는 거야. 血氣는 天殺에 해당이 돼. 죽는다는 것은 風寒濕燥火 自體의 生化作用이 안되기 때문인데, 變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⁸⁹⁾

○ 毛髮 그 自體는 十二經脈에 屬해 있으니까 血氣가 充滿하게 되어 있는데 血氣는 氣의 作用을 抑制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말이야, 곱슬머리는 屈伸이란 概念 中에서 伸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 뺨는다는 것은 水로 보는데 말의 털같이 곧아야지 털이 곱슬이면 뺨는 힘이 弱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곱슬머리는 氣鬱症이 많아. 곱슬머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한 일도 다시 생각을 해.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야. 간깐하고 허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야.⁹⁰⁾

○ <脈이 血氣에 앞서는 境遇>를 보면 '脈은 血氣의 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血氣는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을 卽 形을 뜻하며, 이 말은 脈은 形보다 먼저 存在하며 周流不息하는 先天의 유일한 氣라는 뜻으로 '그 脈이 있기에 그 形이 있다.'는 뜻이다.⁹¹⁾

○ 손목은 人體에서 제일 높은 곳이며 風寒濕을 排除하는 器官인데 脈은 元氣로 血氣와 陽氣가 그곳까지 잘 도달하는지 여부를 감지하므로서 人體의 健康狀態를 알 수 있으므로 寸口에서 脈을 測定하다.⁹²⁾

○ 날씨가 화창하면 血이 기름지고 衛氣가 運行이 빨라지므로 血氣가 빨리 돌아가고 脈搏數가 올라간다. 날씨가 흐리면 血이 凝滯되고 衛氣가 運行이 느려지므로 血氣의 움직임이 느려지니 脈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脈動數가 내려간다. 이와 같이 天時의 狀態에 따라서 血脈의 運行作用이 달라진다. 또한 달의 상태에 따라서 血氣의 狀態가 달라진다. 보름날 되면 女子는 달 보러 나간다. 왜 그러겠느냐? 天人相應의 原理로 볼 때 天時 自體가 血氣를 養해 가는 것이다. 즉 天에서는 日氣와 달의 盈虛로 人體에서는 血氣의 盛衰로 서로 相應하는 것이다. 鷄卵도 보름前에 낳은 것은 속이 팍 차있는데 보름후에 낳은 것은 속이 덜 차 있다. 한 번 시험해봐라.⁹³⁾

○ 女子는 血氣가 盛할 때 妊娠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血氣가 盛하다는 얘기는 排卵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婦人門]에 보면 "女子는 血이 盛하면 胎를 품고자 한다."고 했다. 만약 車를 타고 가다 우연히 초생달을 봤다고 하면 그 달은 奔走하기 짝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몸만 바쁘고 소득이 없다. 왜냐하면 초생달이 뜨면 血氣가 생기기 始作하는데 초

8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77

8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05

8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3

8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13

8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15

8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15

8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56

8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98

9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247

9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3

9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26

9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88

생달을 보면 天人相應하여 血氣가 가볍고 맑아서 돌아다니기를 좋아 한다. 그러므로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초생달을 봤다면 이 달은 고연히 분주하게구나! 또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달이 없다면 陰陽錯亂을 일으키겠구나! 무슨 사건이 나더라도 眞僞가리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⁹⁴⁾

○ 處女는 血氣가 盛한데 보름달이 뜰 때는 排卵 時期(健康한 女子인 境遇)니까 괜히 들떠서 돌아다닌다. 쉽게 얘기하면 월경 風이 動하여 밑에가 간지러워서 돌아다닌다. 陰曆 13일, 14일, 15일(보름)날 舍房을 하고 보름달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뜻도 모르고 아들 낳기를 願해서 보름달을 보았지만 韓醫學의 由로 볼 때는 이러한 理致가 있는 것이다.⁹⁵⁾

○ 얼굴을 볼 때 正人象은 눈썹이 팔에 해당되고, 逆人象인 境遇는 눈썹이 다리에 該當된다. 따라서 血氣가 不足되기 쉽다. 팔이 나쁘든지 왼발이 언제나 다칠 염려가 있다.⁹⁶⁾

○ 어린애가 왔는데 달음질하면 숨이 찬다고 病을 고쳐 달라고 왔다. 13살 난 아이가 왔다면 뭐가 나쁘냐? 달음질 못하는 것이 病이다. 血氣가 나쁘다.⁹⁷⁾

○ 血氣가 盛한 것은 30代 까지다.⁹⁸⁾

○ 여드름은 얼굴에 熱이 많아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血氣가 盛해서 나왔다고 본다. 예를 들면 青春男女의 여드름이 나오는 것은 血氣가 盛해서 나오는 것이다.⁹⁹⁾

○ 女子는 腠理가 稠密하고 男子는 腠理가 성글다. 男子가 눈썹이 진하고 털이 많은 사람은 腠理가 成글지 않고 稠密하다. 눈썹이 짙으면 血氣가 올라가는데, 皮膚呼吸을 함으로써 올라가는 것을 調節해 준다. 유난히 털이 많은 것도 病이고, 털이 없어도 病이다.¹⁰⁰⁾

○ 眉麗한 놈인데 皮膚에는 털이 없으니까 즉 血氣가 盛한 놈이 털이 없으니까 熱이 눈을 쳐버리니까 眼昏이 온 것이다.¹⁰¹⁾

○ 側面이란 血氣가 오르고 내리는 곳이다.¹⁰²⁾

○ 相生이란 血氣를 生하는 것이고 相剋이란 血氣를 養하게 하는 것이다.¹⁰³⁾

○ 여드름이라는 것은 血氣가 盛해서 나오는 것이다.¹⁰⁴⁾

○ 씹어 먹는 것은 血氣를 돈구어서 權衡을 이루기 위해서이다.¹⁰⁵⁾

○ 요사이 飲食 중에 滋味를 골라서 좋은 것만 먹으려고 애를 쓴다.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것도 먹을 때에 血氣가 걸러지는 것이다.¹⁰⁶⁾

○ 사람은 天地를 法하였기에 男子는 天이 되고 女子는 地가

된다. 그러므로 象은 種子요 몸통은 形이다. 男女는 剛柔로 이루어졌기에 血氣의 盛衰로써 나눈다. 그러므로 女子에게도 몸이 통통한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있고, 剛한 사람이 있고, 柔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成形原理에 따라서 用藥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男子에게 쓰는 藥이 있고 女子에게 쓰는 藥이 따로 있다.¹⁰⁷⁾

이를 종합하면 형상의학에서 본 血氣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 즉 形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陰陽昇降運動을 뜻한다. 셋째,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을 모르는 것이다. 넷째, 十二經脈을 통하여 皮膚呼吸을 주관하는 것이다.

3) 氣血과 血氣의 상관관계

지산선생의 어록과 저서에 나와 있는 氣血과 血氣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血氣와 氣血의 分

① 血氣:女子. 봄에는 봄기운으로 因하여 血이 부풀어서 위로 올라간다. 氣는 이를 뒤따라간다. 그래서 血氣라 表現한 것이다. 날이 따듯하면 피가 부풀어서 위로 올라가며 이를 氣가 뒷받침하는 것이다. 血氣는 空轉을 하며 側面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女子는 側面이 발달되어 있다. 손과 발은 血氣를 主管하므로 血氣가 爲主로 된 女子는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繼續 움직이게 되어 있다. 손과 발은 空轉運動을 하게 되어 있는데 空轉에는 浮沈升降이 있다.(自轉에는 浮沈升降이 없다.) 卽, 손은 浮沈運動을 하고 다리는 升降運動을 한다. 女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環跳穴에다가 鍼을 놓는다. 왜냐하면 女子는 側面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머리·귀·팔·다리는 側面을 이야기한다. 地球의 氣象圖는 山川草木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 女子는 側面으로 올라가니까 눈썹과 毛鬚이 좋으며 눈썹과 모발을 손질하는데 1時間 以上이 걸린다. 그러므로 女子는 氣運이 날 수가 없다.

② 氣血:男子. 가을에는 氣가 下降하고 피가 이를 뒤따라 내려간다. 그래서 氣血이라 表現한 것이다. 氣血은 自轉을 하며 前後(任督脈)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男子는 前後가 發達되어 있다.¹⁰⁸⁾

○ 人身의 下體는 男左 女右로 血氣爲主로 되어 있으며, 上體는 左血 右氣로 氣血爲主로 되어 있다. 낮에는 해가 主管하고 氣가 爲主이며, 밤에는 달이 主管하고 血이 爲主가 된다. 血氣를 따라서 經絡이 形成되었다는 말은 血氣와 氣血은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日月의 行程에 있어서 上體는 日에 該當되어 左血 右氣이고, 下體는 月에 該當되어 男左 女右이다.

女子는 洗手하면 귀부터 먼저 씻고, 男子는 顔面部만 씻는다. 팔의 運動은 구부리고 펴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血氣를 기르는 방식이다. 氣血을 기르는 방식은 몸을 굽히고 펴는 것이다. 手足의 三陰三陽病은 經絡病으로 女子의 境遇 側面을 爲主로 보기 때문에 環跳에 鍼을 놓고, 男子는 血氣를 돈구어서 氣血을 調和시키는 데는 四關에 鍼을 놓거나 뜸을 뜬다. 手足은 血氣를 爲

9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93

9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94

9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138

9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184

9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186

9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256

10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326

10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327

10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4권 p. 83

10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5권 p. 83

10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5권 p. 293

10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5권 p. 377

10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6권 p. 40

10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7권 p. 83

10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p. 77-78

주로 하므로 側面에 붙어 있다.手足은 浮沈升降의 空轉運動을 한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手足의 三陰三陽이다.¹⁰⁹⁾

○ 氣血과 血氣

氣血은 팔의 運動을 主管하여 左血 右氣이다. 血氣은 다리의 運動을 주관하여 男左 女右이다. 《內經》의 10歲에는 달음질을 잘 하고, 20歲에는 달리기를 잘하며, 30歲에는 걸음을 잘 걷는다는 표현은 30歲까지는 血氣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¹¹⁰⁾

○ 팔 다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에 三陰 三陽에 鍼을 놓는 것도 좋지만 血氣과 氣血을 돌려주는 子午流注法을 쓰는 게 더 相當하다. 三陰 三陽은 形을 생각해야 한다.

血氣가 氣血로 되는 것을 化顯作用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은 中焦(脾胃)가 맡아서 한다.¹¹¹⁾

○ 心肺는 氣血이고 肝腎은 血氣이다.

女子는 肝腎을 體로 했으므로 心肺가 弱하고, 男子는 天垂로 생겼으므로 心肺가 爲主이므로 肝腎이 弱하다.¹¹²⁾

○ 팔은 浮沈運動을 한다. : 心·肺(氣血) 팔은 沈하는 것을 爲 주로 하기 때문에 내려붙었다.(心肺는 下降을 한다.) 다리는 升降運動을 한다. : 肝·腎(血氣)

上肢 : 男右先動(左血右氣), 下肢 : 男左先動(男左女右)¹¹³⁾

○ 動할 때는 血이 올라와서 氣에 合流하므로 動하는 건데 그러므로 하여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고 할 수 있지. 맞니 틀리니? 그러나 밤에는 어떡하지? 血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血이 올라오면 氣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氣는 내려가. 그래서 血氣 그러는 거야. 우리가 左足を 흔드는 것은 잘 안 올라가서 그러는 게 아니야. 더 잘 올라가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左足を 계속 흔드는 것은 肝을 쓰는 건데 이것은 계속 잘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올라갔으면 잘 안 올라가니까 잘 올려달라는 뜻이라고 전번에 내가 얘기했어. 女子는 血氣가 올라가기 때문에 눈썹이 진하지. 조원장은 눈썹이 진하지. 春夏之象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動해야지. 그러니까 강의를 좀 해야겠지.

地氣가 盛하다는 것은 血은 올라가고 氣는 下注하는 春夏之象을 뜻해. 가을에는 血은 밑으로 내려가고 氣는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지. 이 말은 가을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요(否卦) 봄은 交泰되는 것이다(泰卦) 이렇게 말할 수 있지.

浮沈 卽 氣의 運動이란 말은 제자리에 간다는 뜻이야. 손이 움직이는 것은 陰이 鼓舞作用이 된 것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靜한다는 뜻이야. 요컨대 발도 交會는 하되 陰이기에 靜하고 손은 交會하되 陽이기에 動한다 이 이야기야. 어린아이가 발가락을 까딱거리는 것은 氣血을 調養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어른이 움직이는 것은 제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야. 이뻐 氣藥을 써줘야지.¹¹⁴⁾

○ 氣血은 前後로 돌고 血氣는 側面으로 도는데 女子는 側面이 發達되어 血氣가 側面으로 돌기 때문에 女子는 히프로 걸음

을 걸으며, 男子는 前後가 發達되어 氣血이 前後로(任督脈으로) 돈다.¹¹⁵⁾

○ 男子가 걸음을 걸기 始作하면 右手左足이 先動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왼발이 왜 먼저 나가느냐? 그건 血이 盛하기 때문이야. 오른손이 왜 먼저 나가느냐? 그건 氣가 盛하기 때문이지. 이건 事實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地氣와 天氣의 運動은 달라. 地氣는 血之府니까 血이 먼저 動하고 氣가 따르게 되어 있고, 天에 있어서는 氣가 先動하고 後에 血이 따르게 되어 있어. 氣血이란 말은 氣가 先하고 血이 뒤따르는 것을 말하고 血氣란 말은 血이 先하고 後에 氣가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야.¹¹⁶⁾

○ 손가락이 긴 女子가 왔다면 十二經脈이 爲主가 되므로 血氣 爲주로 보아 益胃升陽湯으로 陽氣를 勝하게 해주고 손가락이 짧은 男子가 왔다면 奇經八脈이 爲主이므로 氣血이 爲主가 되므로 八物湯으로 氣血을 돌구어 준다.¹¹⁷⁾

○ 氣·血이란 天垂 地積을 말하는 거야. 天垂는 心肺가 強해. 그래서 男子는 天垂로서 上이 發達되어 있으니 氣血이라 하고 右手가 先動하고, 여자는 地積으로서 下가 發達되어 있으니 血氣라 하고 左足이 先動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른쪽은 氣가 되고 왼쪽은 血이 되는데 動하기는 그렇게 動한다는 말이지.

卽 이 얘기는 四肢가 衡平을 잡아준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氣血이 左右의 衡平을 잡아 준다는 뜻이야.¹¹⁸⁾

○ 學生 : 선생님! 白內障手術을 해서 눈이 안 좋고 잔 귀도 먹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또 밥맛도 없고 변비도 있다고 하는 할머니한테 黃芪十補湯을 써줬더니 藥을 먹고 나서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電話連絡이 왔거든요? 血氣를 돌려주면 잠을 더 잘 자야지 왜 잠을 더 못잡니까?

芝山先生 : 눈에는 內外를 分別하라고 되어 있어. 卽 內障인지 外障인지를 알아야 돼. 外障手術을 받았다면 眼病을 五臟病으로 보라는 뜻인데 이를 五臟病으로 보지 않고 風寒濕燥火에 대한 藥을 쓰면 탈이 나는 거야. 오히려 四物湯을 썼었다면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經絡을 調節하는 藥을 쓰니까 잠을 못 잔 거지. 여기에서는 氣血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血氣를 돌려줘서 그런 거야.

老人에게 藥을 쓸려면 먼저 血氣가 弱한지, 氣血이 弱한지, 또는 精氣가 交合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흠어진 것이 나쁜 것은 血氣가 나쁜 것이고 모인 것이 나쁜 것은 氣血이 나쁜 거야. 그런데 耳目口鼻가 다 나쁘다 그러면 뭘 줘야 되겠니? 바로 十全大補湯이야.

血氣는 肝腎을 體로 하고 心肺를 用으로 하는데 血氣란 氣血의 多少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또 氣血은 血氣를 前提로 하고 한 말이야. 冊을 찾아봐! 血氣의 많고 적은은 氣血의 多少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血氣는 形을 前提로 해서 天의 數인 10數로 變해. 그래서 10살, 20살 순으로 變하는 거야. 또 運行數는 9數로 되어 있으니 77, 88數로 變하는 거야. 그래서 血氣와 氣血이 對待가 되어야만 精氣의 交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剛柔가 엇갈려야 交合이 된다는 말이야.

10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p. 78-79

11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02

11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03

11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03

11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104

11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p. 205-206

11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권 p. 284

116)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4

117)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19

118)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35

강한 것은 靜하고 柔한 것은 부드러운데 잘 動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氣血은 剛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動하고 靜하는 거야. 아래와 위를 陰陽表裏로 보는데 아랫배가 나쁜 것은 裏病으로 올챙이적 얘기니까 柔한 곳에 病이 들어 온 것으로 血氣病이라 하고, 가슴이 나쁜 것은 表病으로 개구리적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강한데로 病이 들어 온 것으로 氣血病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강한데로 病이 들어 왔으면 氣血藥을 써주고 柔한데로 病이 들어오면 血氣藥을 써주는 거야. 氣血의 定義를 내린다면 바로 '左右의 衡平을 잡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具體적으로 말하면 '剛柔와 動靜의 衡平을 잡아주는 것이 氣血'이란 말이 돼. 조금 전 冊에서 '十二經의 血氣의 多少'를 읽어 봤는데 여기에서 血氣가 氣血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건 剛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剛柔가 뭐냐는 疑問이 다시 생기는데 엄지손가락은 剛하고 새끼손가락은 柔해. 그렇지? 엄지손가락같이 剛한 곳에 病이 들면 氣血이 나쁘다 하는 것이고, 새끼손가락같이 柔한 곳에 病이 들면 血氣가 나쁘다고 하는 거야. 같은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解釋이 달라져.

橫膈膜을 中心으로 橫膈膜 以上の 가슴병은 氣病이야. 病이 되면 내려가지 못해서 逆해 올라오는데 納하지 못했을 때 嘔吐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는 氣藥을 써주는 것이고, 橫膈膜 以下の 腹部의 病은 風寒濕病이야. 그래서 風寒濕藥을 쓰는데 血藥이지. 그래서 氣血과 血氣를 對比해서 본다면 剛한 데서 들어오는 病과 柔한 데서 들어오는 病은 서로 概念이 틀리는 거야.¹¹⁹⁾

○ 十二經脈은 風寒濕을 排除해주는 器官이다. 胞絡病과 泄瀉는 風寒濕에서 온다. 따라서 風寒濕을 排除하지 못하면 十二經脈과 血氣와 胞가 나빠지고 泄瀉도 하는 것이다. 經度의 色이 發顯되어 나타나는 것이 風이 있으면 紫色이고, 熱이 있으면 검다. 故로 이 사람의 便이 검게 나타나는 것은 熱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¹²⁰⁾

○ 清熱瀉濕湯은 女子들이 血氣가 盛해서 濕熱이 올 때 쓴다. 그러기 때문에 男子에게는 血氣가 盛해서 생긴 濕熱을 除하는 清熱瀉濕湯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男子는 氣血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男子의 境遇는 浮沈運動이 안되어서 온다. 清熱瀉濕湯은 升降運動이 안될 적에만 쓰라는 얘기다.

學生 : 氣血과 血氣의 概念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요.

芝山先生 : 사람 놓고 사람 이야기한 것이다.

[用藥篇]에 新陳代謝와 升絳浮沈의 代謝作用에 대하여 나오는데 ① 氣血이란 것은 浮沈運動을 말한다. ② 血氣란 것은 陰陽升降運動을 말한다.

手足關係에서 보면, 血氣란 말은 左手(血) 右足(氣)의 關係를 뜻하고, 氣血이란 말은 右手(氣) 左足(血)의 關係로 되어 있다.

下體는 血氣가 動하므로써 運行된다. 즉, 足의 升降運動을 통하여 血氣가 推動된다. 고무줄놀이하는 여자애들이 血氣가 盛해서 하는 놀이다.

氣血은 반대로 手의 浮沈運動에 依하여 推動된다. 그러니까 男子애들은 던지고 때리는 運動을 좋아한다. 이것은 氣血이 盛하

여 나오는 發現象이다. 血氣란 것은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은 모르는 것을 血氣라고 한다. 올라갈 때는 머리로만 올라가지 밑으로 다리(몸)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머리는 발달되고 肉體는 弱해져 있다. 그래서 女子는 血氣가 爲主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는 발달되었는데 肉體는 弱한 것이다.

男子는 氣血 爲主니까 밑으로 가라앉지만 하므로 먹은 것을 전부 生殖器로 돌려보낸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肉體를 強하게 만들고 精神을 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女子가 男子한테 잘 먹이려고 飲食을 잘 차려 놓았는데 안 먹으면 왜 火를 내느냐? 肉體를 길러주고 精神을 멍청하게 해주기 위해서 잘 먹이려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잘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男子는 氣血을 爲主로 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肉體는 盛해지고 精神은 멍청하게 되며, 女子는 血氣를 爲主로 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精神은 길러주고 肉體는 弱하게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혈기가 머리로 올라가니까! 결국 女子는 精神을 爲主로 만들어져 있고 男子는 肉體를 爲主로 만들어져 있다. 男子는 내려갈 줄만 알지 올라갈 줄 모르니까 男子가 머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弱한 것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반면에 女子는 머리를 작게 만들었다. 만일 머리가 크다면 血氣가 너무 쉽게 不足할테니까!¹²¹⁾

○ 左側이 나쁘다고 봐야 한다. 左側(측면)은 血氣를 올려줘야 되고, 氣血이 運行되도록 하게 한다. 女子는 Hip이 넓적하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많으니까 肝腎이 發達되어 위로 올려주는 힘이 強한데, 이것은 側面이 나빠서 血氣를 올려주지 못하니까 氣血이 盛(肥大)하다. 이 사람은 血氣는 弱하고, 氣血은 強하다. 그래서 側面이 弱하다고 한 것이다. 女子는 肝腎이 強(實)하고, 心肺가 弱하게 되어 있고, 男子는 天垂니까 心肺가 強(實)하고, 肝腎이 弱하게 되어있다. 女子가 肝腎이 實하다는 것은 女子들이 다닐 적에 血氣를 머리로 올려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흔들고 다닌다. 그러면 올라가기만 하니까 몸이 弱하고, 머리만 발달된다. 女子는 血氣를 올려주기 위하여 側面은 좁고 Hip은 넓다. 그러면 血氣가 올라가지 못하면 氣血이 盛해진다. 血氣는 弱하고 氣血이 盛하다. 이 사람은 肥白하니까 氣血이 盛하다. 上體는 強하고 下體는 弱하다는 것은 氣血이 盛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입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 이 사람은 血氣가 不足되고, 氣血이 盛하다. 女子는 血氣가 盛하기 때문에 몸이 작고, 男子는 氣血이 盛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데, 이 女子는 몸으로 보면 男子다. 그러니까 血氣가 不足할 수밖에 없다. 결국 左經湯이 血氣를 돋구는 藥이 된다. “左”字가 血氣를 돋군다는 뜻이다. 이 여자는 血氣가 不足되고, 氣血이 盛하기 때문에 半夏左經湯을 쓴다.¹²²⁾

○ 귀가 2개인데 왼쪽 귀는 血氣를 爲主로 태어났고 오른쪽 귀는 氣血을 돌려주기 위해서 즉, 氣血을 관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¹²³⁾

○ 內的條件이라는 것은 몸의 血氣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外的條件은 몸의 氣血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²⁴⁾

12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p. 187-189

12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p. 236-237

123) 芝山先生臨床學特講 3권 p. 251

12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5권 p. 371

125) 芝山先生臨床學特講 6권 p. 354

119)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p. 197-200

12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2권 p. 201

○ 사람의 몸은 84,000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멍의 열리고 닫히는 작용에 의해서 氣血과 血氣의 運行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¹²⁵⁾

이를 종합하면 형상의학에서 본 氣血과 血氣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氣血은 後天, 秋冬, 浮沈, 男子, 胸, 身軀, 上肢(心肺), 左手足(心肝), 奇經八脈을 중심으로 본다. 둘째, 血氣는 先天, 春夏, 昇降, 女子, 腹, 四肢, 下肢(肝腎), 右手足(肺腎),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본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存在物과 內外與件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氣血과 血氣의 상관관계는 《內經》 및 《東醫寶鑑》에서 도출된 氣血과 血氣의 개념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고, 지산선생은 이것을 더욱 연역하여 임상에 활용하였다.

이상으로 氣血과 血氣의 개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氣血의 개념

① 左右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② 皮肉脈筋骨을 총칭하는 것이다. ③ 剛柔와 動靜의 형평을 잡아주는 것이다. ④ 陰陽變化의 基準과 順次와 그리고 權衡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血氣의 개념

①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 즉 形을 뜻하는 것이다. ② 陰陽昇降運動을 뜻한다. ③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을 모르는 것이다. ④ 눈썹이 진하여 陰陽昇降運動에 문제가 있다.

결론

氣血과 血氣에 대한 《內經》과 《東醫寶鑑》의 문헌고찰과 芝山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內經》에서는 氣血은 後天에서 얻어지고, 正平하고 安定的이며, 형태적인 것으로 본다. 血氣는 先天에서 타고나고, 行血氣하여 流動的이며, 기능적인 것으로 특징지어 표현하였다. 《東

醫寶鑑》에서는 氣血은 平定과 調和를 위주로 보고, 生成은 후천적으로 胃로부터 얻어진다. 血氣는 運行 특히 昇降機能과 虛盛으로 특징지어지고, 先天으로부터 타고난다고 보았으며, 臟腑에서는 肝臟 및 心臟, 胞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形象醫學에서는 氣血에 대한 특징을 左右의 균형 · 皮肉脈筋骨의 변화 · 剛柔와 動靜의 형평 · 陰陽變化의 基準과 順次와 그리고 權衡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血氣에 대해서는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 즉 形을 뜻하는 것 · 陰陽昇降運動 ·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갈 줄을 모르는 것 · 血色의 변화 · 毛髮의 多少 · 耳目口鼻의 昇降氣勢로 본다. 또한 氣血은 浮沈, 後天, 가슴, 上肢, 奇經八脈을 중심으로 보고, 血氣는 昇降, 先天, 배, 下肢,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본다. 芝山은 氣血과 血氣를 이론적으로 구분하였고, 임상실제에서도 활용하여 이론과 실체가 합일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의학사상 최초로 그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본다. 芝山이 주장한 氣血과 血氣의 구분에 대하여 미비한 점은 향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金完熙 편.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90.
2. 박정현, 양성완.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적 고찰 및 치료. 대한형상의학회지 Vol.2, No1. 2001.
3. 배병철 편.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4. 백근기. 形象鍼法 研究. 대한형상의학회지 Vol.4, No1. 2003.
5.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2.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
7. 洪淳昇. 洪家定診秘傳. 서울, 醫藥社. 1982.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1-7권. 서울, 芝山出版社. 1996-1999.
10.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